

[인터뷰] 최진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청년 농업 인육성” 방점

✎ 김육봉·오승근(=호남) 기자 | ☎ 승인 2025.04.01 14:52



최진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폴리뉴스 김육봉·오승근(=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1월초 최진 지사장이 취임한 이후 진도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 지사장과의 인터뷰를 갖고, 현안과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업무와 조직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농지은행관리부와 농어촌사업부 2개 부서에서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도군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농지은행사업은 경영 규모와 연령별 농가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단계별로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청년농과 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업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수 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농촌 관광산업 육성 및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주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에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총 13지구에 2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 건의로 586억원 규모의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 지구 추진을 통해 농어민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와 농작물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비농업인, 전업농, 은퇴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을 지원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과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농지 확보에 도움을 주며, 매도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를 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어업 용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책은?

“매년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을 겪는 진도군 지역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금호호~군내호 농촌용수이용 체계 재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량이 풍부한 해남군 소재 금호호에서 진도군의 군내호, 둔전제 등의 주요 저수지까지 약 17km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간이 양수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가뭄을 대비해 양수저류가 가능한 저수지들은 용수 확보를 위해 사전에 물 채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준설 사업 이후 무강우로 인해 백동제가 현재 저수율이 9%로 매우 저조합니다. 영농기 전 저수율 확보를 위해 5km 구간을 송수호스와 3단 간이 양수장을 설치 완료했고, 적기에 영농 급수가 가능하도록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포~지산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업이 진행토록 노력 중입니다.”

—인근 신안군은 염해 농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로 햇빛 연금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의 발전 방향은?

“신안군은 2021년 4월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한 결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신안군 인구는 약 3만명으로 2022년 대비 315명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진도군은 현재 인구가 약 2만8000명으로 2022년 대비 1159명 감소했으며, 인구 유입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100% 재투자되며, 발전 규모의 5%에 해당하는 마을 발전소를 건설해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진도지사는 저수지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통 연계 해소와 주민 수용성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 된다면 약 30MW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약 1.5MW의 마을 발전소가 건설돼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도군의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우리 진도지사는 농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육봉-오승근(=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